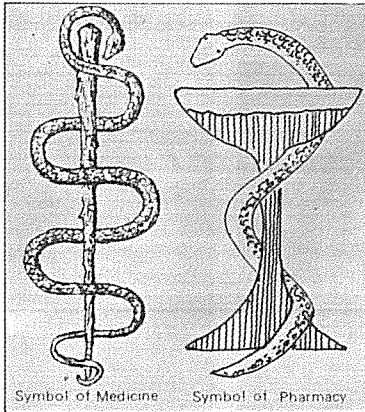


아폴로는 外道행각에서 얻은 아들 에스큐라피우스를 人馬의 神에게 보내어 医術을 배우게 했습니다.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말의 형상을 한 人馬의 神은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모든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따라서 에스큐라피우스는 당대 제1의 医神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딸이 있어 Hygeia에게는 귀중한 그의 뱀을 맡아 보살피도록 했으며, Panacea에게는 万가지 藥物을 맡아 처리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Hygiene이나 Panacea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이같은 뱀에 대한 치료신앙이 발전하여 오늘날 医藥의 심볼에까지 뱀을 使用하게 되었습니다.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